문소관광 주식회사
(주)편월바이오 안동. 의성점
태형농장
代表 權 世 穆

경북 의성군·읍 문소3길 101
의성사무실(054-832-1138~9)
경북안동시 태화 7길 9
안동사무실(054-859-7893, 855-5566)
휴대폰 : 010-3505-1138

安東權氏宗報

[월간] 2015年 9月 1日(화요일) ☎ 대표 (02)2695-2483~4 www.andongkwon.org 종보보급소 (02)2695-2480, 070-8866-2480 權氏 紀元1086年 第 483 號

始祖 太師公 墓所와 陵洞齋舍

시조 태사공 묘소와 능동재사

태사공실기와 능동실기 묘도편이나 모재 김안국(金安國)의 모재장원기에 태사공 묘소(太師公墓所)는 천등산에서 내려와 조화곡(造火谷) 자좌오향(子坐午向)이며 옥녀단좌형(玉女端坐形)에 금차척지혈(金叉擲地穴)이라 하였으며 마을 이름은 금계(金溪)이니 속칭 검제 또는 능동(陵洞)이라고 하였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안동부편 총묘조에는 "권행의 묘는 본파곡리(本破谷里)에 있다"고 하였고, 안동읍지에는 "20世 부사 권소(權紹-20世 檢校公派 桐溪公 達手의 子)가 권심행(權審行-21世 僕射公派 野翁公 檥의 子) 권몽두(權夢斗-22世 僕射公派 判書公 靭의 7대종손), 외손 유공계(柳公季)로 하여금 사초케 하고 한식에 제향을 올렸다."고 하였다.

안동읍지(安東邑誌)인 《영가지(永嘉誌)》의 총묘조(塚墓條)에는 3태사의 묘에 대해서

고려 태사 권행묘 : 부서(府西) 본파곡리(本破谷里)에 있고 태사를 장사한 후 그 동호(洞號)를 능동(陵洞)이라 하였다. 가정(嘉靖:명 세종) 정사(丁巳:명종 12, 1557)에 부사(府使) 권소(權紹)가 능 아래에 사는 성손(姓孫) 권심행(權審行)·권몽두(權夢斗)와 외손 유공계(柳公季)로 하여금 흙을 바꾸고 사초(莎草)를 고쳐 한식(寒食)에 묘소에 올라가 행사(行事) 하였는데 그 축문(祝文)에 이르기를 '천등의 남쪽 줄기에 수봉(壽封:오래 갈 봉분)을 이처럼 높이니 공덕은 외흡(巍洽)한데 후예는 여유롭고 종중은 융숭하여 매세 한식에 정결한 제향을 공경히 올리오니 오르내리심이 계신 듯 성대한 형용이 밝게 드러난다' 고 하였다.

태사공실기 천등산기(天燈山記)

천등산은 안동부 서쪽 20여리에 있는데 그 근원은 태백산에서 비롯하여 여러 고을을 연이어 내려와서 그 줄기와 굽이를 다 기록할 수가 없다. 봉정사의 뒷 산에 와서 재기(再起)한 봉우리 가운데 한 가지가 남쪽으로 굽어 내려와 흩어져 여러 갈래를 이루었는데 그 작은 가지의 하나가 서쪽으로부터 동쪽가지와 더불어 둥글게 돌아 산중에 안장한 고려 때의 태사(太師) 권공 행(幸)의 조역(兆域)을 포용하고 있다. 여기에 태사공이 조장(厝葬)된 이래 6,7백년이 되도록 자손이 심히 성하였으나 재장자(再葬者)가 전무하고 산소 역시 황폐하니 그 조역(兆域)을 분별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

그러다가 성화(成化) 연간에 18대손인 평창군사(平昌郡事) 휘 옹(雍)(17世이므로 시조의 16대손인데 잘못 기록되었음)이 충주로부터 부인(府人) 이조정랑 배소(裵素)의 딸을 아내로 맞아 부(府)의 땅인 풍산현 하회촌(豐山縣 河回村)에 거주하면서 하루는 여지승람(輿地勝覽)을 펴 보다가 시조 태사공(始祖 太師公)의 묘소가 소재한 곳을 알았다. 그러나 비갈(碑碣)이 없고 세월이 미매(迷昧)하여 좇을 만한 표지(標識)가 없었는데 술사(術士)와 더불어 산록(山麓)을 올라가 두루 답사한 끝에 지석(誌石)을 얻어내 이로써 태사공의 진짜음택(眞宅)을 발견하였다. 이에 흙을 모아 봉분을 쌓고 장차 입석을 하려다 이루지 못하고 졸하게 됨에 임종시 그 아래 장사해 줄 것을 명탁하였다. 그런데 부인 배씨가 공의 생존시 먼저 졸하여 이미 태사의 계하 수보되는 곳에 장사했으므로 공의 분묘는 그 밑에 차례로 안장되었다. 그후 평창공의 아들 유(裕)와 작(綽) 등이 이미 평창공의 묘전에 입석을 하고 세계(世系)를 상록(詳錄)하였으며 또 선지(先志)를 받들어 태사의 묘에 단갈(短碣)을 세우니 비갈의 뒷면에 있는 말은 곧 유(裕)의 사위 이종준(李宗準)이 짓고 쓴 바였다.

뒤에 유와 작 등이 옛 거소인 평창으로 돌아가니 사위인 호군(護軍) 증사복시정(贈司僕寺正) 유 소(柳諱沼) 부처가 남록에 합장되고 이로부터 유씨가 세수(世守)하게 되었다. 유소의 아들 자온 증 참의(參議)부부가 북록 태사공 묘소로부터 400보 떨어진 곳에 합장되었고 그후 감사(監司) 유중영(柳仲郢)을 평창공 아래 한 단락에 장사했던 것이다.

天燈山 °在安東府西二十餘里 °其源始於太白山 °自鳳停寺後岳 °再起爲峯 °中一枝南俯而下 °散爲諸派 °又一枝自西回環 °與東枝俱抱 °高麗時太師權公幸 °葬于山中 °歷六七百年 °子孫甚盛 °然而無繼葬者 °山亦荒廢 °不辨兆域 °成化間 °太師十八代孫平昌郡事諱雍 °自忠州娶府人吏曹正郎裵素女 °居府地豐山縣河回村 °一日 °披輿地勝覽 °知始祖太師墓所在 °而無碑碣 °歲月迷昧 °無從標識 °與術士徧登山麓 °求誌石以見 太師眞宅

명종 12년(1557년) 안동부사로 부임해 온 권소(權紹)는 태사묘(太師廟)를 중수하고 태사공묘를 정수하면서 위토답을 최초로 마련하였으니 퇴계의 중수기에 상세히 나와 있다. 가첩에는 제곡 1백석을 더하고 비복도 재사에 배치하였다고 기록되었다. 1557년 권소는 능동묘제를 한식일에 한번 지내오던 것을 한식과 10월 중정에 추향제를 올리도록 하였다.

선조 21년(1588년) 22세 충숙공 권극지(權克智-樞密公派 正獻公系 參議公 齡의 증손)가 경상감사로 부임해 능동묘소를 성배하고 묘갈(墓碣)을 바꾸어 세웠다. 유성룡이 짓고 22세 권오(權晤)가 쓴 묘비문에 선조 21년 관찰사 극지가 순시 차 당도하여 제사를 올렸는데 마침 무렵 하인이 잘못 비석을 건드려 깨지니 다시 세웠다고 한다.

선조조 능동실기 제영(題詠)에 22世 석주 권필(權韠-樞密公派 文忠公6대손)이 성묘하고 능동제영이라 시를 지었으니

家牒稿成 題于卷尾

羅王聖骨是吾先(신라왕의 성골이 바로 우리 선조시니)
西始鳴鷄事渺然(시림에서 닭 울던 일 그 자취 아득하다)
錫邑今方三七代(식읍 하사 받은 것이 바야흐로 21대)
開邦舊已一千年(나라 연 지 아득히 1천년이 지났다네)
翰林詞藻風聲遠(한림의 문장은 풍성이 아득하고)
僉議尊榮福慶綿(첨의 존영은 복과 경사 이어졌네)
小子怛然憂失墜(소자는 실추할까 두렵고 근심하여)
錄爲家牒要流傳(가첩으로 기록하여 오래 전하려 하네)

* 태사께서 내게 21대조이니 삼칠이라 했다.

현종 2년(1661년) 24세 탄옹 권시(權諰)가 지은 태사공(太師公) 신도비문(神道碑文)에는 21세 영의정 권철(權轍-樞密公派 文忠公 近의 5대손)이 관찰사가 되어 위토를 마련하였다.

효종 4년(1653년) 경상감사 24세 동곡(東谷) 권우(權堣-추밀공파 정헌공계 충숙공 節의 6대손)가 묘소 우측에 공터를 마련하여 재사(齋舍)를 창건하니 대청 4칸에 협실 각 2칸과 협실 아래 동서재 각 3칸, 정면 4칸에 곳간 등 4각형으로 16간으로서 비로소 태사공 묘소를 전수하는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1687년 24세 하당 권두인(權斗寅)이 재사기를 썼다.

△시조묘소 : 안동시 서후면 권태사길 16

△시조 묘비와 신도비 高麗三韓壁上三重大匡亞父功臣權幸墓

△능동재사 : 안동시 서후면 권태사길 87

△신도비각 : 안동시 서후면 권태사길 87

효종 10년(1659년) 영천군수 25세 호연(浩然) 권성원(權聖遠-侍中公派 花川君 5대손)이 태사공 신도비 수갈을 발의하여 석역소를 설하고 풍기에서 7척의 돌을 벌채하여 외손 이인(李垐)이 도왔으나 호연공이 한성서윤으로 부임해 중단되었다가 현종 4년 호연이 선산부사로 부임하여 재착수하였는데 하세하니 24세 권정(鋌)과 심(諗) 입석하였다.

신도비문(神道碑文)은 현종 2년 한성우윤 **탄옹 권시(權諰**-24世 樞密公派 正獻公의 10대손)가 짓고 글씨는 외손 이조참의 이경휘(李慶徽)가 썼으며 두전(頭篆)은 외손인 사헌부 장령 허목(許穆)이 썼으며 음기는 외손 예조참판 조복양(趙復陽)이 짓고 병조판서 외손 김좌명(金佐明)이 썼다.

숙종 3년(1677년) 12월 능동재사에 각파 대표가 참석하여 종약을 제정하고 족회(族會)를 설하였다.

숙종 8년(1682년) 25世 경상감사 **시경(是經**-樞密公派 正獻公系 忠烈公 順長의 아들)이 상석을 개조하고 향로석, 문관석, 망주석 등을 세웠으며 재사가 협소하므로 누각을 세우기로 하여 1684년에 7간의 누각을 준공하니 위층에 1백인이 앉을 수 있고 아래층에 좌우 곳간을, 중앙에 통로를 만들고 재사 동쪽에 3간 신주(神廚)를 세우고 담장을 두르니 곧 **추원루(追遠樓)**이다. 능동실기 신도비각 중수기에 안동부사로 재임 중인 26세 유회당 권이진(權以鎭-樞密公派 正獻公 12대손)이 신도비각을 세우고 영조 1년(1725년) 경상감사로 와 족회를 베풀었다.

영조 18년(1742년) 유문에서 능동재사의 수묘군(守墓軍) 승도(僧徒)를 모두 내쫓고 점거하는 사변이 일어났는데 비변사에서는 제사를 내려 "태사의 묘도를 수호하는 절목은 타인이라도 공경하고 삼가는 여지가 있거늘 추로지향(鄒魯之鄕)을 돌보지 않아 이 같은 행위가 자행된다니 실로 지극히 한심하다." 하였다.

영조 29년(1753년) 능동재사에 원인 모를 화재가 나 건물이 전부 소실되었다. 정조 20년(1796년) 언덕에 보판각을 건립하였는데 이는 후 갑인보 목판을 보존키 위해 세운 것이고 순조 26년(1826년) 중건하고 고종 33년(1896년) 이건하였다.

헌종 4년(1838년) 이재 권돈인(權敦仁-32世 侍中公派)이 경상감사로 부임하여 능동재사에 화수회(花樹會)를 열고 위토를 더하도록 하였으며 헌종 5년 예천군수 권용만(權用萬)이 위토를 더하였다.

고종 27년(1890년) 재사 동쪽 전사청(典祀廳)의 하례방을 보수하였는데 권연호(權淵浩)의 재사중수기에는 병신(1896년) 4월 8일 밤 숙직자가 실화하여 불길이 치솟고 70여간이 모두 소진되어 현액(懸額)과 신필(信筆)이 모두 타 버리고 오직 장판각(藏板閣)만이 모면하였다 하였다.

1897년 4월부터 능동재사(陵洞齋舍)중건이 시작되어 3년만인 광무 3년(1899년) 완공되었다 하며 추원루에 8개 주련을 붙였는데 충장공 권율도원수 10대손인 경농 권중현(權重顯)이 지었다.

이후 전사청을 중신(重新)하고 유사가 재숙할 성경재(誠敬齋)를 지었으며 이해 가을 중건할 것을 모의하여 여러 회의기구에 배당해 자금을 모아 이듬해 본채 21간을 세우니 당(堂) 4간 서재 4간 당 북쪽에 사경재(思敬齋) 2간, 남쪽에 주사(주방) 5간 동익에 제기보관소 서익에 곡식저장소를 지었으며 1899년 2월 안동에서 의연금으로 추원루(追遠樓)를 복원하니 위층은 당헌(堂軒), 아래층은 곳간을 세우니 총 28간이라 하였다. 귀산 권제영(權濟寧)이 지은 재사중수기실에는 병신년 4월 불이 누각에서 번져 실당으로 만연하여 70여간이 회신되고 임사청(任事廳)과 전사청만 남았으니 계유년(1753년) 재앙보다 더 혹독하였다.

〈3면에 계속〉

안동종친회 단합대회(복회) 개최

△안동종친회는 안동서부초등학교에서 복회를 개최하였다.

△1. 복회정경 2. 권영세안동시장 3. 권주연 안동종친회장 4. 권문희씨 시낭송

안동종친회(회장. 권주연) 주최 2015년도 안동권씨안동종친회 단합대회(伏會)가 8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안동시 금곡동 안동서부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권영세 안동시장을 비롯하여 김광림 국회의원, 권중동 전 노동부장관, 권계동 대종원 상임부총재, 권재주 고문, 권오을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 권택기 전 국회의원, 권상용 안동과학대학교 총장, 이삼걸 전 행자부 차관, 김백현. 권광택. 권기익. 권기탁. 권남희 안동시의회 의원 5명, 고문, 원로, 부회장단, 권계주 청년회장협의회장, 청년회, 능곡회, 능우회, 부녀회, 종친회원 등 8백여 명이 참석하였다.

권박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 순국선열 및 문중을 빛낸 선조님에 대한 묵념, 시조묘소 망배, 상견례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축사에서 "오늘 단합된 모습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주최 측은 식전 권문희씨가 '권문을 노래하다' 라는 제목으로 시를 낭송하였고 권경란 초청가수는 귀에 익은 <여자의 일생>을 불러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권주연 종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권중동 전 노동부장관, 김광림 국회의원, 권영세 안동시장, 권오을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 권택기 전 국회의원, 권상용 안동과학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하여 주어서 고맙고 또 행사준비로 수고한 읍. 면. 동 지부단 총무, 능곡회, 청등회, 각 파 부녀회들이 꿀벌같이 활동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게 되었으며 멀리 서울에서 온 서울청년회 회원 9명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권중동 전 장관은 격려사에서 "천지일근(千枝一根)을 예로 들면서 안동권씨도 한 뿌리에서 천가지 만가지로 뻗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광림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안동권씨가 복회문화를 처음 만든 것을 축하하며 앞으로 능곡고택에 서기(瑞氣)가 깃들기를 빈다"고 말했다.

권오을 새누리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젊은 나이에 도의원과 국회의원을 하는 등 그동안 출세를 위해 철없이 행동 한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안동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였으며 권택기 전 국회의원은 "안동권씨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자 안동에 내려왔는데 반듯하게 일하겠다"고 하였다.

사무국장은 찬조자의 이름과 금액을 일일이 소개하였는데 70여 명이 2천2백여 만원이 접수되었으며 경품찬조자와 단체에서 보낸 500여 만원어치의 물품을 소개했다.

1부 행사가 끝나자 참석자는 대회장의 앉은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는데 권재주 고문이 건배사를 했으며 푸짐한 음식을 먹으며 환담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이어졌다.

이때 권용성 초대가수가 <월영교> <안동역에서>라는 두 곡의 노래를 불렀다. 2부 행사는 각 지회별 노래자랑과 초청가수 노래 및 경품추첨이 있었다.

사회자는 영남방송 전병윤씨로 각 지회 및 단체에서 선발된 30여 명이 그동안 갈고 닦은 노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영예의 최우수상은 안동시 용상동 권숙경씨가 차지했으며 부상으로 상금 20만 원을 받았다.

각 지회별로 노래자랑을 하는 사이 재롱둥이 손녀와 초등학생 3~4명이 1개조로 나눠 5개팀이 참가, 평소 배운 벨리댄스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경품추첨은 영예의 1등은 안동시 노하동 권년한씨가 대형TV 1대를 차지했다.

이날 행사는 오후 3시 30분에 마쳤는데 체육관에 대형 에어컨을 틀었지만 면적이 넓은데다 참석자들이 워낙 많이 참석하는 바람에 더위 때문에 부채질을 해야 하는 등 일부 참석자는 큰 불편을 겪기도했다.

〈권영건 보도부장〉

安東權氏宗報 | 종시 : 숭조이념확립·애족사상고취 후학계도기여·사회윤리배양

발행인 권정달 편집인 권경석 인쇄인 권영웅

발행장소 : 안동권씨대종원 :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 (2층)
우 : 130-820 전화 (02) 2695-2483/4 FAX (02) 2695-2485
안동사무소 :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천로 18 (3층)
우 : 760-905 전화 (054) 854-2256 FAX(054)854-2257
태사묘 연락소 : (054)859-2346 안동시 북문동 24-1(서재)

E-mail : ankwon2695@naver.com / ankwon2695@nate.com
홈페이지 : www.andongkwon.org 안동권씨대종원

편집위원	권계동, 권오복, 권혁채, 권승세, 권오운
기 자	권영건, 권혁세, 권경일, 권범준
자문위원 : 권중달, 권인호, 권영한, 권영섭, 권오창, 권태현	

예금주 및 계좌번호
권 경 석 국민은행 448601-01-378019
(안동권씨대종원) 농 협 076-02-247343

종보사(개인독자)
우체국 : 종보사
010108-01-000369

안동권씨대종원 자원봉사자 모집

안동권씨대종원 발전을 위하여 아래 기능보유자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자원봉사분야
·관리분야 ·종보편집분야 ·고시원관리 ·전산업무
※ 봉사 희망자는 사무총장과 면담
▶ 연락처 안동권씨대종원 사무처
·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2길11(용두동)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6번출구
·전화 : 02-2695-2483~4 ·팩스 02-2695-2485
· E-Mail : ankwon2695@naver.com

안동권씨대종원